



보도 일시	2022. 9. 7.(수) 06:00 (수요일 석간)	배포 일시	2022. 9. 5.(월)
담당 부서	물관리정책실 수생태보전과	책임자	과 장 이병훈 (044-201-7040)
		담당자	사무관 이정화 (044-201-7049)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 5곳 선정

- 노후산단 대상 조성, 비점오염저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한번에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로 부산광역시(신평·장림산단), 울산광역시(미포산단), 강원도 동해시(북평산단), 충청북도 청주시(청주산단), 경상남도 진주시(상평산단) 등 총 5곳의 산업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은 비점오염관리에 취약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 및 물순환 개선과 함께 식생 조성 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환경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를 공모했다.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 추진기반, 운영·유지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5곳 지자체의 노후 산업단지를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되며, 총 사업비는 약 355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50%씩 투입될 예정이다.

○ 낙동강 하구 습지보호지역과 인접한 부산 신평·장림산단은 장림 포구를 거점으로 친수-녹지-관광을 연계, 옥상녹화·식생체류지 등의 저영향개발*(LID) 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개선 및 탄소흡수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Low Impact Development)

○ 40년 이상 노후화된 울산 미포산단은 비가 많이 내리면 산단 안에 있는 하천이 범람하기도 하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침수 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시설을 설치하고 입주기업과 함께하는 물순환 특화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 인근의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해 수질 민원이 발생하는 강원 동해 북평산단은 저영향개발(LID) 기법과 빗물이용을 연계한 공원 및 생태도로 등을 조성하여 수질 및 물순환 개선과 함께 산단 근로자와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 40년 이상 노후화되고 인근에 대규모 상업·주거지역이 있는 충북 청주산단은 저영향개발(LID) 시설과 연계한 클린로드를 조성하여 열섬 완화와 물순환 개선을 도모한다. 도심 주거지 중심에 있어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남 진주 상평산단은 50년 이상 노후화된 산단으로, 저영향개발(LID) 시설을 설치하여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빗물유출을 저감하며, 빗물이용시설과 연계한 살수차 운영 등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2006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의 의무화되기 이전에 조성된 노후 산단은 그간 비점오염관리에 취약한 면이 있었다”라면서, “이번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도 함께 참여하여 비점오염을 저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주요 사업계획. 끝.

- ① 부산(신평·장림산단) : 습지보호지역(낙동강 하구) 인접, 장림유수지 수질 개선 필요
 - 부네치아*(장림포구)를 거점으로 친수-녹지-관광을 연계하여 수질 개선 및 탄소흡수원 확대 * 수상도시 베네치아를 표방



옥상녹화



식생체류지



클린&쿨링로드

- ② 울산(미포산단) : 40년 이상 노후산단, 우천 시 산단 내 위치한 하천 범람
 - 침수 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LID 시설, 입주기업과 함께하는 물순환 특화 산단 조성



LID 거리



도로 LID 시설 적용(침투측구, 식생도랑 등)



- ③ 강원 동해(북평산단) :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한 수질 민원, 관광자원 활용가능 입지
 - LID-빗물이용 연계 공원, 생태도로 등을 조성하여 수질 및 물순환 개선과 함께 근로자·시민에게 휴식 공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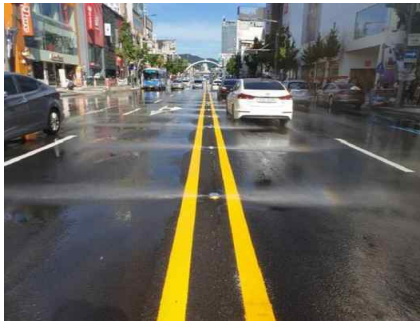
LID-빗물이용 연계 공원



생태도로

④ 충북 청주(청주산단) : 40년 이상 노후산단, 인근에 대규모 상업·주거지역 위치

- 열섬 완화 및 물순환 개선을 위해 오염저감·기후변화대응형 클린로드-LID 시설 연계



LID 연계 살수시설



식생체류지



식물재배화분

⑤ 경남 진주(상평산단) : 50년 이상 노후산단, 도심 주거지 중심에 있어 잦은 민원

- 산단에 특화구간을 설정하여 탄소흡수원 확대, 빗물유출저감, 기후변화적응 집중 추진



탄소흡수원 확대(식생)



빗물유출저감(침투형 우수관거)



기후적응(빗물이용시설 연계)